


봉사하는 불교 신자신문 02)745-8503  
이)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속사 대전 논산시 인안동 순경리

**법어 조대 지혜 스님 대법사 조실**



“마음을 크게 하려면 마음자리를 봐야지. 태어날 때 본심이 바로 그 마음자리야.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깨달음은 오직 하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야.”

“공부를 눈으로만 하려고 해서 안돼.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겠나. 마음으로 해야지.”

\*\*\* 지혜한 내용은 12·13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비불자 정치인들의 불심잡기

“한국불교는 한국정신과 문화의 맥을 이어온 전통의 중심이다.” “입체중생에 불심이 있다는 제불사상으로 국민을 구도해 주기 바란다.” “사람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재이고 이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97년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김중철, 이인제씨는 불교사상과 전통성, 문화적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자신의 불교관을 밝힌



바 있다. 이들 가운데 불교인은 없지만 불심을 잡기 위한 경정은 치열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불교관을 현실정치에서 반영해 왔다고 믿는 불자들은 거의 없다.

4년이 지난 현재, 올해 대선 후보자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각 당 후보자들의 종교를 보면 이회창, 한화길, 정동영씨는 가톨릭이고, 김중철, 유종근, 김중권씨는 개신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무현, 김근태, 이인제, 박근혜씨는 무종교다. 결론적으로 불교인은 단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권 주자

로 나서든 자신의 종교와 관계 없이 불심을 잡기 위해 사찰이나 법회장 방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뜻있는 불자들은 벌써부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례에 비하면 대선 후보자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리고 하기 보다는, 표를 모으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경선 후보자들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보자가 몇 안 되는 이유도 이런 속셈을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후보자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를 밝힌 후보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종교는 ‘기불력’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을 합친 말로 그저 표를 모으기 위해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을 찾아다니는 행태에 대한 비아냥이다.

그런 목적이거나 사찰이나 법회장에 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불교의 성스러운 의식을 집전하는 법회장이 표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굳이 얼굴을 내밀지 않아도 불자들은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 불교교양대 교과특성화

장례문화학과 · 불교한문학과 · 비교종교학과 · 사회복지학과 등 신설

불교교양대학이 특성화되고 있다. 불교교양대는 최근 들어 장례문화학, 불교한문학, 비교종교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과를 신설하는 등 교리 위주의 교과과정을 탈피, 전문적인 사회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 대학들도 특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추세는 불자 기초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동산불교대학은 2002년 신학기를 맞아 중국문화 이해와 체계적인 원전해석 방법 연구를 위해 50명 정원의 ‘불교한문학과’를 신설했으며, 경남 금강불교대학은 불교장례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40명 정원의 ‘장례문화학과’를, 부산 대광불교대학은 ‘사회복지학과’를, 광주불교대학은 ‘비교종교학과’를 각각 신설했다.

또 서울 정토불교대학은 설립이후 모든 학생들에게 회기당 반드시 8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분야를 특화시키는가 하면, 서울 불교사회복지대학은 아예 ‘사회복지전문요원’ 양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 대광불교대학, 전

북 화엄불교대학, 울산불교교육원도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과정을 신설해 이 분야 특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신행 생활을 심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신도들의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과목의 특성화로 차별화한 불교교양대학들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방불교대학은

법파학과, 불교미술학과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서울 삼화불교대학은 중국남경중의약대와 연계해 ‘중국유학준비과’를 개설, 차별화를 꾀했다. 인터넷 불교대학 분야에서는 무불선원대학원, 대구 영남불교대, 전북불교대, 달마불교대 등이 2000년부터 원격강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 동영상 등의 입체적인 강의를 진행해 수강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금강불교대학 조재환 사무장은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로 정보 관련 시설과 함께 신도기본교육을 심화하는 등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교대학들이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더 설치해 특정 분야에 불교적인 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불교교양대학 신입생 모집 3면 김철우 기자 [cs-gan@buddhapa.com](mailto:cs-gan@buddhapa.com)



눈 속의 ‘동자야 놀자’  
원 눈으로 태어난 동자승과 함께 천진불심으로 돌아가보자. 태백시가 1월 19-29일 개최한 눈축제에 출품된 ‘달마야 놀자’ (대구대학생들 제작)가 눈길을 끌었다. 시베리아 허스키가 끄는 개별매를 탄 눈 축제 참가자들이 눈으로 만들어진 동자승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태백=고영매 기자

**불교자원봉사 전문분야로 확대**  
조계종 복지재단 발표

발반사요법, 상담봉사, 단전운동지도, 한방요법, 영물봉사 등 불교자원봉사 활동분야가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은 23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신년대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봉사자 440명의 활동내역을 조사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급식·복육·업무보조 등의 단순 노력봉사에서 발반사요법, 단전운동지도 등의 전문분야로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50대(39%, 144명)에서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운 수치로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가 전체 11%(51명)를 차지했다.

김철우 기자

### ‘직지심경’ 세계화 추진

청주시, 전략위원회·실무팀 등 구성

청주시가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를 위한 시민모토를 표창하고 직지 e-Book 사이버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지난해 9월 세계기독교문화포럼에서 열린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세계화에 적극 나선다.

청주시는 최근 ‘직지 세계화 전략 추진위원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고 1단계(2002-2003년) 사업으로 △직지 및 구텐베르크 상서 순회전 개최 △오페라 ‘직지’ 공연 △직지 기념스북 등재 △직지영화제작 △직지 e-Book 사이버전시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2단계(2004-2006년) 사업으로 ‘직지의 전당’과 ‘직지 박물관’을 조성하고, ‘직지 문화제’와 ‘직지 관련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직지의 날’과 ‘직지 문화상’, ‘직지 문화상’을 제정, 직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대해 ‘직지 찾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07년 이후에는 관광특구 지정과 해외전시회 개최도 추진한다.

여수영 기자 [snopy@buddhapa.com](mailto:snopy@buddhapa.com)

### 총무원장 선거제도 2월 1일 공청회

조계종 중앙총회 공헌 개정 및 종법 제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종해)는 2월 1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심익섭(동대 행정학과), 정병조(동대 윤리문화과)교수가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법적 제도적 고찰’,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종합 토론은 총회의원 원담·경문 스님, 홍사상 불교방송 본부장이 참여한다. 김환우 기자

**제7회 신행수기 시상식** 2월 2일(수)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5계 지키기

1. 불교신자로서 5계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 스스로 몇점을 주셨습니까?  
①100점 ②80점 이상 ③60점 이상 ④60점 미만

2. 5계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는 무엇입니까?  
①불살생 ②불투도 ③불음령 ④불말어 ⑤불음주

3. 5계를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①생활 습관 ②계율을 잊어 버려서 ③주변의 유혹 ④직업 때문

설문 참여: 1월 31일까지 [buddhanews.com](http://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5호 9면에 실립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예암대중사 “황금 법사리” 친견법회

일일일식(一日一食) 장좌불와 등 선승의 신화를 통해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베푸신 대한불교 조계종 10대 중정 해암대중사의 오색 영롱한 황금 법사리 친견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암총림 방장스님이 신 법전 큰스님 등 원로존진 대중스님들이 동창한 가운데 봉행된 사리수습에서 총 86과의 오색 영롱한 황금 법사리가 출현하였습니다. 해암대중사의 수행 덕회가 그대로 담긴 오색 영롱한 황금 법사리에 많은 사부대중들이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암사에서는 오는 2월 17일까지 해암대중사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무루 동창하시어 중정예하 황금법사리 친견 기도 공덕으로 신심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고득락 하여지시, 바른 깨달음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46년 1월

해인사 주지 세민 합장  
문도 대표 성법 합장

**해암 대중사 황금 법사리 친견 법회 안내**

- 입제일 ▶ 2002년 1월 13일 (음력12월 1일)
- 회향일 ▶ 2002년 2월 17일 (음력 1월 6일)
-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 접 수·문의 : 해인사 중무소(055)931-1001 / 원당암 중무소(055)932-7308

